

5, 60년대, 어느날 밤의 우먼파워 바람 바람 바람~



어머니의 개 바지(1950년대)

여성의 변화 - 사회 중심으로의 자리매김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 한다.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옮겨가면서 사회구조도 이전 산업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수직조직에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수평조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러한 수평조직은 남성보다 감성이 앞선 여성이 우월하다고 한다.

최근 우리주위에서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위기를 극복한 야당 여당수, 제일보수적인 조직체였던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여성장관 등 이렇게 여성이 사회 중심 역할하기까지 한국여성은 짧은 기간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불과 60년(해방전)만 하더라도 양가집 아낙이 사회에 나오는 것을 죄악시 하였다. 붓물 터지듯이 해방이 되고 준비없이 맞은 서구민주주의 앞에 한국사회는 물론 여성에게도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했고 잇따른 6·25전쟁으로 대책없이 시대는 여성을 사회로 내몰아,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남편 대신 오직 몸뚱아리 하나로 많은 식솔을 거두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야 했다.

“30초 백열등 아래에서 밤세워 샷 바느질 했던 어머니” 등에 어린 동생을 업고 생선담은 양철 다라이를 머리에 인 어머니” “보따리에 잡다한 생필품을 들고 집집이 찾아 다녔던 어머니” 이것이 50년대 한국여성의 사회생활 모습이었다.



댄스 홀(1950년대)



“자유부인” 영화 poster(1956년)

5, 60년대 우먼파워 “춤바람”

그러나 이런 참 모습 이면에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의무를 등한시 한 채 권리만 누리려고 했던 이들에 의해 한국여성사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춤바람” “켓바람” “치마바람”이라 일컫는 5,60년대 “우먼파워”였다.

그중 사회적으로 메가톤급 이슈가 “춤바람”이었다.

당시 시대상을 리얼하게 나타내었던 1954년 “정비석”의 신문연재소설 “자유부인” 교수부인이 가정에서 벗어나 양춤을 가르쳐 준 연하남성과 애정행각을 하지만 결국 부인은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그러나 작품의 의도와는 달리 역작용으로 “댄스 홀”이 유행하였고 “자유연애” 풍조가 일어나더니 급기야 한 개인의 애정사건이 비화되어 서울대법정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술이다 “나는 결코 그녀들과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피차 댄스 홀에서 만나 춤을 추고 밤이 늦어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여관신세를 졌다. 70명의 여인중에서 단 한 사람이 결혼 안한 처녀였다.”

서울 대법정은 이렇게 판결했다. “법은 스스로의 정조를 보호하는 자만 보호한다.”

“무 죄!”